

에너지 단신

산업자원부 대관령 풍력발전사업 허가

강원풍력발전(주), 금년 11월부터 착공

산업자원부는 강원풍력발전(주)이 강원도 대관령 지역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사업을 허가했다.

강원풍력발전(주)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 1500kW급 풍력발전기 66기를 설치하여 발전용량 99,000k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의 약 0.2%에 해당한다.

강원풍력발전(주)은 이를 위해 1단계로 19기(28,500kW)는 금년 11월부터 토목공사 착공에 들어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업운전이 개시되며 나머지 47기(70,500kW)는 2005년 11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등 연간 190,000MWh를 생산하여 전량 전력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백두대간보호를 위해 발전기 66기중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내 건설될 24기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획득한 후 설치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했다.

이번 풍력발전사업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으로 국내의 유니스

산업(주)이 독일의 풍력발전 전문업체인 Lameyer Int'l사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강원도도 동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업비 1,339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742억이 외국으로부터 조달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금번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는 대관령지역은 풍속이 평균 6m/s 이상으로 경제성이 높고 이미 초지로 조성되어 산림훼손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사업의 최적지 중의 하나이고, 풍력발전의 선진 전문기업인 독일의 Lameyer사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업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발전, 대체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서울경제)

2003년 3월 설치공사 시작

남부발전이 한전의 발전자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체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남부발전은 제주도 북제주군 환경면 용수리 일대에 150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6천kW급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

다.

이번 사업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전담하고 있는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으로 풍력발전기를 공유수면에 설치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현재 환경영향 검토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에 주기기 발주를 거쳐 내년 3월에 설치공사를 시작한 후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LPG요금 42원 인상 될 듯 (서울경제)

재경부 7월 1일자 에너지세율 조정

다음달부터 에너지세율조정으로 LPG(액화석유가스), 경유 등 기름값이 리터당 30~40원 오를 전망이다. 또 자녀들의 유학비나 체재비를 해외로 보낼 때 자금규모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양도세 사전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7월부터는 이 절차가 폐지되고 등기후 2개월내에 양도세를 낼 경우(예정신고)에는 세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7월1일자로 에너지세

율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LPG, 경유에 붙은 세금이 각각 1리터당 67원, 185원에서 118원, 232원으로 인상돼 소비자 가격이 30~40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또 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전자화폐(e 코인)으로 판매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재경부관계자는 "이밖에 7월부터는 제조물책임(PL)법, 방문판매법(개정)이 시행되고 증권, 보험사들도 외환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변화가 많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센추리, 佛에 소형 가스 냉난방기 공급기로 (한국경제)

유럽지역 시장성 높을 것

센추리는 프랑스 국영가스회사인 GdF(Gaz de France)와 소형 가스 냉·난방기 공급 협의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센추리는 지난 4월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전기가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하는 냉·난방기기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전비용도 에어컨의 40%에 불과하

testo KOREA
New

testo 350M/350XL

**고객의 광범위한 측정 사양을
만족시키고 보다
사용이 간편해진 휴대형 연소가스
분석 시스템 testo350**

350M |
최대 4개 측정모듈 구성 가능(O₂, CO, NO, NO₂)
온도, 풍속, 차압, 상대습도 계측 통합출력시스템,
가스전처리장치 내장

350XL |
최대 6개 측정모듈은 업그레이드(NO, NO₂, 트리
거 등) CxHy, H₂S 측정모듈 기능 추가

테스토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가 21번길 11-1호
TEL 02-672-7200대 • FAX 02-679-9893
http://www.testo.com • E-mail: kso@testo.com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동 13-10 ECG빌딩 422호
TEL 052-227-5551 • FAX 052-227-4206

BEXCO BUSAN
부산지사 • 컨벤션센터 개관 EPC-C2002
2002.5.14(화) ~ 5.17(금)
부산 전사 컨벤션 센터(BEXCO)

- 모든 종류의 산업용 연소기 조절
- 순수 천연가스의 농도를 보다 장시간 측정
- 모든 종류의 작업 노의 환경 점검
- 블록타임의 열 발전기와 같은 고정된 모터 관리
- 연소가스 뿐만 아니라 덕트내의 가스압과 가스풍속 점검

에너지 단신

다고 밝혔다.

센추리는 내달중 테스트용 제품을 보내 제품 기능을 점검, 구체적인 공급 물량 및 가격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품은 프레온 가스가 아니라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제품이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민감한 유럽지역에서는 시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진 6호기 원자로 설치 무기한 연기

지체상금 물 수밖에 없는 상황

올진 원전 6호기 건설이 원자로 공급자인 두산중공업 노조의 파업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일 올진 6호기 원자로 설치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산중공업 노조가 원자로가 있는 창원공장을 원천 봉쇄해 원자로 출하를 못해 원자로설치가 파업이후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원자로는 원전의 핵심설비로 공급자인 두산중공업이 창원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이동해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준비작업까지 포함해 약 10여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 원자력건설처 한 관계자는 "원자로설치가 며칠 늦어지더라도 전체 공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 달 이상 장기로 지연된다면 후속 공정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측은 "국책사업인 원전건설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파업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지체상금을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00만kW급 한국표준형원전으로 오는 2005년 6월 완공할 예정인 올진 6호기는 건설공정상 원자로 설치의 내달 1일이나 물품납품 계약상 19일 출하할 예정이었던 원자로가 출하되지 않아 두산중공업은 일일 1억원씩의 지체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PETROVIETNAM GAS사와 협력협정 체결

동남아 진출기반 확보

한국가스공사는 베트남의 국영 가스공사인 PetroVietnam Gas사와 지난 6월 8일자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가스공급설비 및 배관망 건설사업이 최근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영 가스회사인

PetroVietnam Gas사와 정보교환, 공동 기술 연구개발, 해외 프로젝트 참여협력 등 가스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협정은 지난해 8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양국간 가스사업 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력협정으로 양사는 약국의 가스 산업 관련정보,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기술연구, 연구개발, 교육분야 등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사는 유망한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LNG 인수기지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천연가스시장, 그리고 천연가스 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인근 동남 아시아 국가로의 적극적인 사업진출이 기대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호치민시 남부 붕따우지역의 Phu My 가스공급기지의 운전 및 보수분야 중 교육훈련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의 주요 도시에 건설될 LPG+Air시스템도시가스공장 운전 및 보수교육과 LPG+Air 플랜트 설비수출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협력협정 체결로 베트남은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인도, 대만에 이어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

7~8월 도시가스요금 현행으로 동결

수요확대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기 위해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7~8월에 적용될 원료비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상당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 수요확대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와 서민 불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7~8월에 적용할 도시가스요금 원료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Nm³당 평균 354.49원이며, 소비자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397.58원이 된다.



열관리사업회보 광고문의
T.679-6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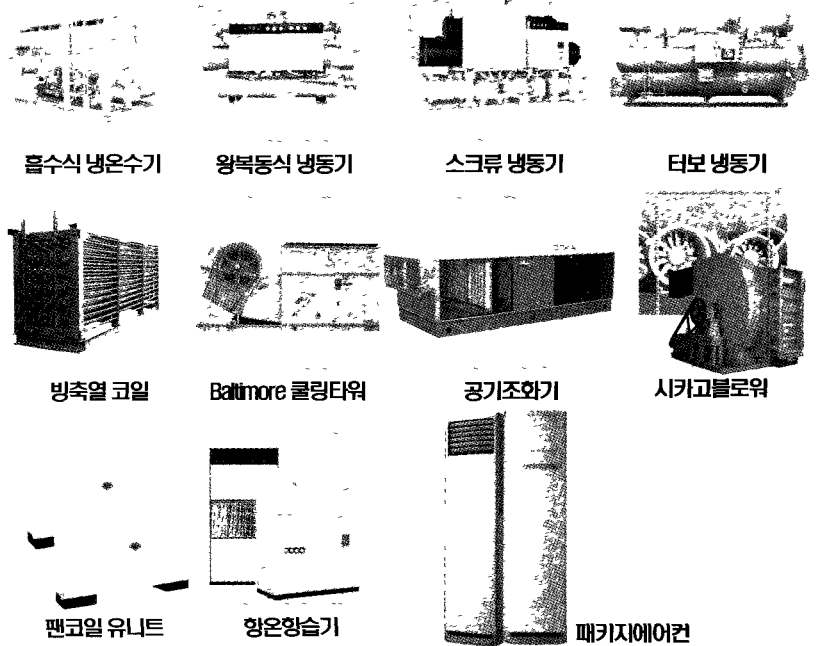
www.bac.co.kr

PAN PANOCEAN

PAN은 범양의 영문표기인 Panocean의 첫음절을 형상화한 것으로 범친화적인 기업관과 초일류 냉동공조 기업으로의 성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한 의지와 각오로 초일류 냉동공조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한의 기술과 가치의 추구로 40여년 외길을 걸어온-범양냉방
풍요한 세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힘찬기업
제2, 제3의 도약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범양과의 만남은 당신의 만족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